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
http://www.motie.go.kr		

2018년 3월 20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 19.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8. 3. 19.(월)	담당부서	수출입과
담당과장	이원희 과장(044-203-4040)	담 당 자	이중엽 서기관(044-203-4043) 한혜원 주무관(044-203-4045)

산업부, 시중은행과 수출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 협력 시동

- 환변동보험료 70% 지원, 환가료 100bp 우대로 수출기업 부담 완화 -

- 무보-우리은행, 「중소·중견 수출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업무협약」 체결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3. 19.(월) 오후 3시 우리은행 본점에서 **한국무역보험공사**와 **우리은행** 간 **"중소·중견기업 수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"**을 체결해 **수출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을 적극 협력**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< 무보-우리은행간 업무협약식 개요 >

- **일시/장소 :** 3.19(월) 15:00~15:30 / 우리은행 본점 23층
- **참 석 :**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, 손태승 우리은행장
- **협약내용 :**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

○ 두 기관의 협력은 최근 원-달러 **환율의 변동성 확대***로 인한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**산업부가 시행 중인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 방안****에 이은 추가적인 지원 조치**이다.

* 원/달러(한은) : (12월) 1,085.95 → (1월) 1,066.54 → (2월) 1,080.70 → (3.1~3.16) 1070.58

** ①일반형 환변동 보험료 50% 할인, ②옵션형 환변동 보험 한도 3배 확대(1백만불 → 3백만불)

○ 무보·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, 수출 중소·중견기업들이 환변동보험 이용시 **보험료*를 최대 70%까지 지원**해 **기업의 환율 위험분산(리스크 헤지) 부담을 낮출 것**으로 기대한다.

* 원/달러 선물환 할인율 : 현행 15% 할인→ 향후 추가 최대 70% 보험료 지원
: (예시) 100만불 가입시 보험료 30만원 중 현행 4.5만원 인하 → 추가 17.8만원 지원

○ 특히 양 기관은 최근에 무보가 지원하는 '일반형 환변동 보험'에 추가하여 환율 상승시 기업들의 환수금 부담이 없는 **'옵션형 환변동 보험'**에 대해서도 **지원**할 방침이다.

□ 한편, 무보·우리은행은 환변동보험 지원 외에도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우리 기업의 **신흥시장 진출 촉진,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금융지원, 중소·중견기업 임직원 대상 무역·금융 교육*** 등을 통해 **수출기업들을 다각적으로 지원**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.

* 무역실무(수출입 절차, 무역보험 제도), 금융실무(환위험 관리, 외국환거래법 등)에 대한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중소.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

○ 특히, 양 기관이 상호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서 은행 **환가료*를 최대 100bp(1%) 우대**하고 **단기수출보험** 보험료도 추가 20% 할인**해 **중소·중견기업**의 수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.

* 환가료 : 은행이 기업의 어음을 담보로 대출시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로, 단위는 1bp(basis point, 0.01%)를 사용
: (예시) 환가료 100bp 우대시 현행 연간 이자율 3.851%→향후 2.851%로 인하

** 단기수출보험 : 결제기간 2년 이하 단기 수출기업에게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

□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"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,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**환변동에 따른 위험 등을 최소화**하기 위해 **무보·시중은행간 새로운 수출지원 협력 모델을 마련**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"라고 밝히며,

○ "향후 보다 많은 중소·중견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**다른 시중은행들과도 협력 체계를 적극 구축**해 나가겠다."라고 강조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이중엽 서기관(☎ 044-203-40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